고은의 불교 대하소설

한양 입성

〈6〉

그녀가 욕정과 결부된 발작을 일으킨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느 때의 평상 상태로 돌아갔다. 그 평상심이 드러난 얼굴의 적막함 가운데에는 극미(極微) 세계의 보이지 않는 어떤 기원(起源)이 가까스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어디 그뿐 인가. 일체의 희로애락이 사라진 우녀의 얼굴이야말로 인담이 꿈꾸는 얼굴이기도 하였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꿈; 아니 그 꿈과도 바꿀 수 없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꿈이 우녀의 얼굴로 나타난 것인지 모른다.

마음은 문득 마음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의 화신(化身)을 이루어 준다. 그것은 바다가 배를 뜨게하는 물인 것과 함께 고기를 살게 하는 일의 동시적인 세상의 기호(記號) 인 것과도 다를 바 없다.

이로부터 인담이 우녀에게 말을 거는 일이 있게 된다.

"나 건너 갔다 오리다. 이 무욕도야말로 삼천대천세계를 삼키는 보살의 도량입니다. 보살에게 도량이니 정사(精舍)니 하는 이름이 굳이 붙여질 것이 아니건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인담의 뜻을 미리 짐작하고 하루이틀 먹을 주먹밥을 만들기 위해서 고두밥을 솥에서 퍼내는 그 풍부한 김 가운데에서 들어 올린 우녀의 얼굴은 지극히 신비스러웠다.

인담의 마음도 다 알아차렸다.

"너무 많이 만들지 마오. 구름과 물이 하늘과 땅에 의지하되 거지가 아니건만 그런 것을 배우는 중에게는 거지의 소임(所任)이 가장 거룩하다오. 그러니 가다가 얻어 먹고 가다가 얻어먹지요"

"…."

"어디 거지가 그냥 거지랍디까? 거지 행각은 이 세상의 도둑을 없애는 일을 하는 수행이기도 하다오."

"달포를 다 보내셔도 좋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돌아오셔요. 그래야 이 섬에 꽃 한송이 피어있는 것 어여삐 여길 사람이 있게 되지요. 꽃도 그 꽃을 보는 사람이 없을진대 그게 무슨 꽃이겠습니까?"

인담은 흠칠 놀랐다. 우녀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파도 소리와 바람소리 가운데에서도 그 청냉한 목소리는 잘도 돋을새김으로 들려왔다.

처음 두 사람이 이곳에 건너 왔을 때는 도무지 우렁찬 파도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는 아예 포기된 대상이었다. 그래서 인담은 말 대신 손짓으로 우녀에게 부엌 아궁이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묻어두는 일을 시켰던 것이다.

오직 파도 소리 뿐이었다. 그러나 한동안 이곳을 떠나 있던 인담에게도 새로운 남자에게도 차츰 그 파도 소리의 쪽거에 익숙 해지면서 그 절대적인 강도(强度)가 잘어드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덧 파도소리가 있으나 없으나를 막론하고 두 사람의 대화가 큰 소리가 아닐지라도 가능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파도 소리로부터의 해탈이 실행된 것이다.

다음날 인담은 무욕도의 단 하나뿐인 거루에 탔고 우녀가 튜인 밧줄을 풀었다. 인담은 당장 파도의 물너울에 떠밀려졌다가 파묻히기도 하면서 섬의 암초 밖으로 나아갔다.

그것은 배에 탄 사람의 의지라기보다 파도의 의지에 의한 동작임에 틀림 없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그 거루는 제 갈 길을 택할 수 있었다. 우녀는 그것이 섬 모퉁이를 돌아간 뒤에도 처음의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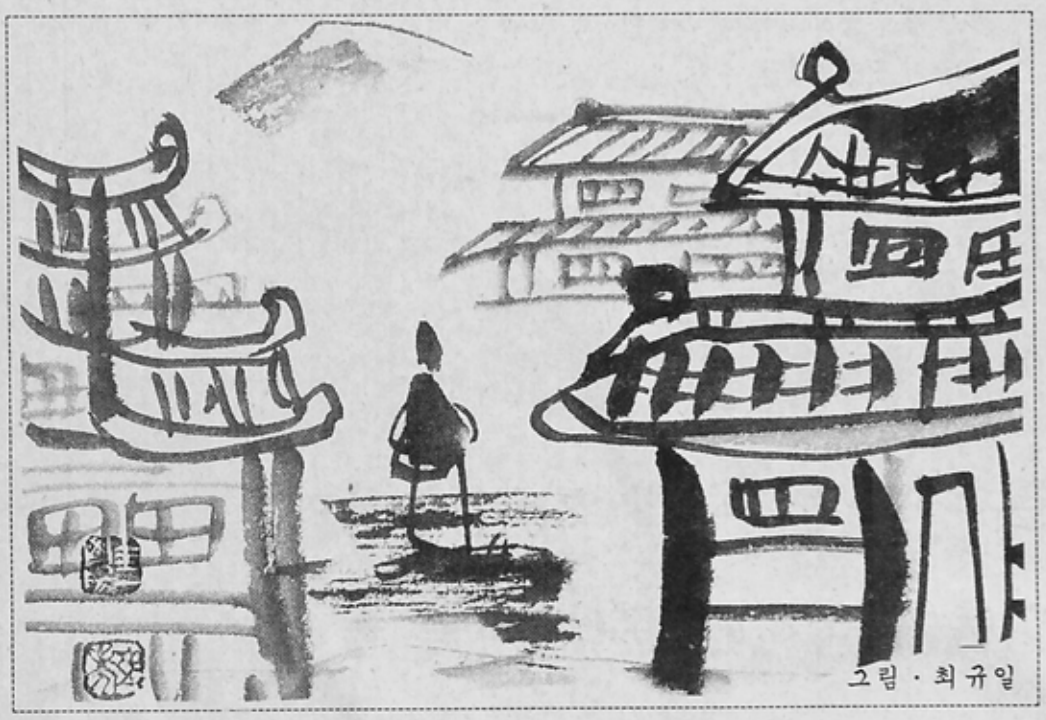
그녀의 눈에 눈물 한 방울이 의무적으로 고여 있었다. 잘 빚어내린 댕기 머리이지만 바닷바람에 의해서 그 머리칼이 부풀려졌다.

인담이 돌아 올 때까지 지낼 양식과 땔감은 별난 사고가 나지 않는 동안이라면 걱정할 수 없게 장만해 두었다.

사실인즉 인담은 우녀 몰래 밤중에 배를 띄워 뭍에 다녀 온 적이 있었다. 그때 양식과 옷가지 그리고 몇 가지의 물건도 실어 온 터였다.

섬을 떠난 인담이 반드시 챙겨간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서하문집〉의 궤짝이었다.

바로 그 몽롱한 의식불명 가운데서 인담은 임춘의 시 세계보다 <수미행>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것은 소승의 구사론 세품 그대로의 것이며 그것에 앞선 화엄경의 '수미산에 오르는 품'과 그 찬에도 한치 어긋나지 않고 있었다. 그가 깨어난 곳은 봉노 주인이 그를 송장으로 치부하여 내다버린 뒤의 남산 기슭 복숭아 밭 구렁이었다.



林정승이 죽다니 … 인담은 의식이 몽롱해지고

다만 그것 한 질과 선비들이 도포나 두루마기 소매 안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읽을 수 있게 된 소책자 〈수미행〉은 섬에 두고 왔다.

그는 먼저 충청도 내포(內浦)일대로 넘어가기 전에 가야산에 들렀다. 지난 시절 한 철을 보낸 곳이었다.

그곳의 노승 침계(枕溪)화상으로부터 낙향한 예산(禮山)의 임학자(林學者)를 찾아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임학자가 누구인지는 노승도 아는 바가 없었으나 그 학자라면 서하 임춘과 관련되는 후예인지도 모른다는 짐작이 있었다.

그래서 인담은 예산까지의 질펀한 들길을 때로는 논두렁으로 때로는 마을 앞 밭두렁을 거치며 그 비산비야와 들녘이 이따금 교체되는 풍경속의 나그네가 되었다.

임학자라는 사람은 예산관아에서 멀리 떨어진 초가 삼간짜리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가 뜻밖에 인담의 방문을 받자 마침 잘았다는 듯이 "우리 사문(斯文—儒敎를 지칭)에는 주술(呪術)이 없어서 입대신 손이 날래어 상소문 쓰기에는 알맞으나 신이(神異)한 지경에 이르는 심신(心身)의 조화(造化)가 없어요. 대사가 나를 찾은 까닭이 무엇이오?"

말투가 의연하였다. 걸핏하면 불승을 능멸하는 다른 선비와도 달랐다.

"빈승이 찾아뵌 사유만을 아뢰고자 합니다."

"좋으시도록"

인담은 임학자라는 헌 망건바람의 불이 벌은 잔반층(殘班層) 선비에게 좀 갑작스럽다 할 정도로 〈서하문집〉에 대해서 말을 꺼냈다.

임학자는 한번 눈을 크게 뜬 뒤로는 이렇다할 표정을 내보내주지 않고 좁은 방안에 어울리는 것 같은 팔짱낀 자세로 앉은 키가 높았다. 한점 흐트러지는 바를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당쟁(黨爭) 후기에 접어들어 소론(小論)의 정파가 한동안 득세를 하는 숙종조 후기는 가히 세상이 변하는 절기였다. 왕이 그 자리를 세자에게 물려 준다고 공포한 뒤 얼마 있다가 그것을 번복하였다. 이를테면 왕위 조차도 알뜰한 것이 못되었다.

이런 세상의 시골에서도 일거일동의 보신(保身)이 글을 아는 자들의 첫째 대목이었다. 임학자가 팔짱을 좀 느슨하게 푸는듯하며 한마디 내던졌다. 그것은 곡서도(曲道)의 첫자가 잘못 써진 종이를 재빨리 구겨서 휴지통에 숨겨 버리는 동작을 연상케 하였다. "아무래도 도성(都城—漢陽府)에 들어가야 할 일인 것 같구려"

"어찌 칠천(七賤)의 반열에 끼어 백정과 노비에 다를 바 없는 산승(山僧)이 도성 출입인들 가(可)한 노릇이겠습니까?" 인담의 말은 당찼다. 상대방의 눈이 지긋이 감겨졌다.

그 시절은 조선반도의 여기 저기에 굶주려 죽은 시체가 몇만씩 중앙 정부에 보고되는 형편이고 그런 보고 밖의 시체는 훨씬 많은 수치였다. 인담이 예산까지 오는 동안의 충청도 서해안 농가마다 송장이 누워있다는 표시로 삭은 지붕에 헌 중의나 바지 따위가 얹혀져 있는 것을 본 바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그런지라 그의 한끼니 구걸도 걸러서도 너끈하게 방손(傍孫)일 것이오. 아니 방손이 못되면 추손(追孫)에는 틀림없을 것이오."

"…."

나이 40이 되지 않는 중년의 선비는 꽤 대담한 제안을 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한 불운의 시인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조선 사대부의 상투적인 시 놀이에 충격을 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 그런 일에 자신이 적당한 정도로 관련되는 것도 싫지는 않았다.

"다짐할 일이 있오. 대사"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옷 한 벌과 갓을 줄 터이니 이것을 나한테서 받았다는 말일랑 대사의 기억 속에서도 없애야 하오"

그때서야 인담은 앞길이 환해지는 것이었다.

"관세음보살"

이라고 그 자신만이 들도록 보살의 명호(名號)를 불러 보았다.

"변복(變服)을 하고 들어가보오"

임학자는 밖의 동정을 슬쩍 살피기 위하여 퇴창을 열었다 닫은 뒤 바로 윗방의 고리짝을 열어 뀌뀌한 옷 한벌과 좀 먹은 갓 등속을 챙겨 냈다.

"엽전은 몇 잎이나 가지고 있오?"

"변변치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구려"

하고 엽전 반꾸러미까지 꺼내는 것이었다.

"자아, 그만"

이라고 그는 인담을 내쫓다 시피 하였다.

인담이 차현(車峴)을 넘어 천안 삼거리를 지날 때까지도 그저 걸승(乞僧)의 행각이었다.

그러다가 안성장의 보부상 한 떨거지를 따라 용인과 과천 노들 나루에 이르는 한강 기슭까지는 그의 운명이 아닌 하릴없는 속인으로 행세하였던 것이다.

그는 기찰이 심한 남대문을 들어가서 "아아!" 하고 큰소리를 질러댔다.

한양성이 이렇듯이 은성한 줄은 몰랐으며 비록 경복궁은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북악의 그 세련된 위엄 아래 아득히 육조(六曹)거리에 수레가 가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담이 들은 비보(悲報)는 임정승이 장차 영조(英祖)로 등극할 세자(世子)를 모함했다는 죄명으로 국문(鞫問)을 당한 몇 달 뒤 장사(杖死)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인담의 낙담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남대문 안의 창방(倉坊) 언저리 봉놋방에서 지끈지끈 머리가 쑤시더니 의식이 몽롱해지고 말았다.

바로 그 몽롱한 의식불명 가운데서 인담은 임춘의 시 세계보다 〈수미행〉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것은 소승(小乘)의 구사론(俱舍論) 세품(世品) 그대로의 것이며 그것에 앞선 화엄경(華嚴經)의 '수미산에 오르는 품(昇須彌山頂品)'과 그 찬(讚)에도 한치 어긋나지 않고 있었다.

그가 깨어난 곳은 봉노 주인이 그를 송장으로 치부하여 내다버린 뒤의 남산 기슭 복숭아 밭 구렁이었다.

신간

신비의 영부적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렸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도
바뀔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신국판/800쪽/값 35,000원

관음 역서 시리즈
1. 내가 푸는 내 운명 감정 소프트 상 하 각권 값 9,000원
2.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값 12,000원
3. 관음 소프트 만세력 값 8,000원

관음출판사 전화/921-8434 팩스/929-3470

108개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쓴

이야기 한국불교사 I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344면 / 값 6,000원

"구도의 불길이 한 순간도 꺼진 날이 없었던
1600년 한국불교사
이제 그 찬란한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 문화의 뿌리가 되어온 불교문화.
한국불교의 위대성과 독창성.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이야기 한국 불교사 I」은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불교의 전반적인 모습을 108개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풀어 쓴 책으로 불교도는 물론 일반인 · 중고생까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 이제까지 발간된 한국불교사 관계 책 중에서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불교모임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기에 적합한 책입니다.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전화 (02)587~6612,6613 도서출판 효림 팩스(02)586~9078

일타 큰스님의 육성 법문 테이프

감로 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과 환희심을
이루는 일타 큰스님의 법문!"

· 큰스님 살아오신 이야기 (테이프 1·2)
· 마음 · 마음 · 마음 (테이프 3)
· 오분향을 이루는 공부 (테이프 4)
· 참된 회향 (테이프 5)

선물용 · 포교용으로 좋습니다. 5개 1세트 / 값 10,000원

성철 큰스님의
열반과 사리

한평생의 철저한 수행과 열반,
108과의 사리 출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깨우쳤던 성철 큰스님
일타 큰스님은 성철 큰스님의 열반에
즈음하여 사리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사리란 무엇이며, 사리는 정녕
어떻게 할 때 생겨나는 것일까?

1개/값 2,500원

· 법보시를 원하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전화 : 587·6612·6613 도서출판 효림 FAX : 586 9078